

군산시, 지속성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만든다

사회적경제 비전·5개년 중장기 추진전략·세부사업 제시 인재양성·창업·보육시스템 구축·군산형 협력체계 지원 등

군산시가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5개년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등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용역은 사회적경제발전 비전과 목표설정,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마련, 군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진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기업들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의 방법으로 군산 사회적경제 보유자원 및 수요를 파악했다.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로 공동 번영하는 군산'이라는 비전 아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성장 견인 경제체계 구축,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추진 전략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물적·제도적 기반 지원 ▲군산형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공 및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지원 등이다.

세부 정책영역으로는 ▲Pre-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혁신도대 구축 ▲인재양성 및 창업·보육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매 촉진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 ▲대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윤동욱 군산시 부시장은 "용역팀의 최종 보고자료에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5개년 중장기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등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담겼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구용역은 군산시의 사회적경제 발전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농업·농촌 배경 단편영화 공모전 '고창은 처음이다' 대상 차지

고창군의 농업·농촌을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 공모전에서 '고창은 처음이다'가 대상을 차지했다.

고창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창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농업농촌 3분 영화제는 고창의 농생명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제1회 대상의 영예는 고창의 수려한 풍경을 담아낸 '고창은 처음이다(팀명 모닥불·대표 민기람)'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작품으로는 '고창한끼(팀명 신고빛고·대표 김도균)'가 선정됐고, 우수상은 '고인돌의 숨결(팀명 해피특별·대표 김효균)'과 '생명이 시작되는 곳 아름다운 고창이야기(팀명 캣루·대표 김승룡)'가 받았다.

장려상으로는 황동욱씨가 출품한 '함담화', '스카이드림' 팀이 출품한 '전지적 고창시점 하늘에서 본 고창' 작품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입선작 4작품을 포함, 총 10편의 영상작품이 수상을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5개의 영상작품이 접수됐다.

이후 전국민 온라인투표(4522명 참여)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고창군 고창군 농생명지원과장은 "농업농촌 3분영화제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을 시상식 이후부터 각종 행사 및 교육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며 "고창군의 농업농촌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전북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는 정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2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0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

전북도, 청년 일자리 제공·기업 인력난 해소 280억원 들여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만 39세 이하 청년(총 500명)을 정규 20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받도록 고용하는 도내 기업은 1인당 월

이와 함께 3년 이상 고용을 지속하면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일사불로 받는다.

전북도는 전주대, 원광대, 국제학식문화재단과 함께 탄소·신소재, IT·바이오, 농생명·식품분야 인력을 양성해 연구기업에 청년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는 지난 30일 '창업보육실 입주 희망기업에 대한 심의평가회'를 갖고 입주 희망업체 4개사를 선정했다. <정읍시 제공>

농축산용미생물산업센터 창업보육실 정읍시, 입주 희망업체 4개 회사 선정

정읍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창업보육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심의평가를 통해 4개 업체를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

기업별 입주 동기와 사업계획 설명, 산업화 방안, 질의답변 등을 거쳐 선정된 기업은 HD 바이오와 (주)푸로진 바이오 클로렐라, 와이엔 바이오, (주)코어 바이오 등이다.

이로써 현재 센터 내 창업보육실에는 총 8개 기업이 입주하게 됐다.

시는 입주기업에 촉매 작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조 요청했다.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는 입주기업 보육 시설(16개 실)을 갖추고 있다.

미생물 대량배양기인 10t 발효기와 농축분리라인, 건조라인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미생물 생산·제조 중소기업에 입주공간과 다양한 미생물 제품의 생산 기회를 제공한다.

또 농축산용 미생물 대량 배양조건 확립과 생산자원을 통해 영세한 규모의 산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미생물 제품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농축산 미생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신상옥 감독 '성춘향' 등 역대 '춘향' 영화 무료 상영 남원 광한루서 오늘부터 3일간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가 깃든 남원 광한루원에서 역대 '춘향'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남원시는 광한루원 야외극장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오후 7시에 역대춘향 영화를 하루 1편씩 상영할 계획이다.

광한루 건립 600주년과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념해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과 남원시가 공동으로 가을밤 추억의 춘향 영화를 복원한다.

3일 첫날에는 1961년 개봉된 신상옥 감독, 최은희·김진규 주연의 '성춘향'이 상영된다.

4일에는 1968년 개봉된 김수용 감독, 홍세마·신성일 주연의 '춘향'을, 5일에는 2000년에 개봉된 임권택 감독, 이효정·조승우 주연의 '춘향뎐'을 볼 수 있다.

또 '최고춘향' 선정 이벤트와 광한루원에서 촬영된 영화·드라마 포스터와 포토존도 즐길 수 있다.

한편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우천시에는 남원관광단지에서 위치한 춘향문화회관 소공연장으로 장소를 변경해 상영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사업 '최우수'

익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주관해 지난해 추진된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8개 분야에서 평가했다.

익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종합 10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공익활동 분야 우수상,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은 시장형 분야 대상, 지역업체인 (주)견주사랑과 (주)하림은 각각 고령자친화기업 분야 최우수상과 참여기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 주도의 자체교육을 통한 수행기관의 업무능력 향상, 정기적인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한 담당자 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 사업역량을 끌어 올렸다"며 "양질의 노인일자리와 시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순창군, 보건의료원 내 장례식장 10개월만에 재개장

순창군이 보건의료원 내 장례식장을 10개월 만에 재개장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운영 방법 개선과 내부시설 보완을 위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휴업해왔다.

군은 장례지도사를 비롯한 인력을 확보하고 내부를 새로 단장해 10개월 만에

재개장했다.

군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상주측이 식자재, 장의용품, 장례업체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지역민은 하루 20만원, 지역 외 주민은 25만원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